

# ‘내실성장 집중’ 김기홍號... 점유율·종합검사 ‘시험대’

〈JB금융회장〉

## JB금융 김기홍 회장 취임 100일

조직개편 등 경영 효율화 주력  
2분기 당기순이익 963억 추정

기반 지역 점유율 하락 ‘과제’  
종합검사도 리더십 잦아들 듯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JB금융

취임 100일을 맞은 김기홍 JB금융 회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내실 성장에 초점을 맞춰 경영효율화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지만 지역점유율 회복과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까지 여전히 과제가 산적해 있다.

### ◆김기홍號, 내실 위주 지역영업 강화

8일 시장조사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JB금융의 2분기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96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741억원) 대비 222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순이익은 1938억원으로 지난해(1864억원)보다 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적으로만 보면 취임 100일을 맞은 김기홍(號)는 일단 안정적이다.

김 회장은 취임 전 기자간담회에서 “배당성향을 대형 금융그룹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리겠다”며 “내실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배당정책을 확고히 해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JB금융 관계자는 “기본에 충실한 내

실 위주 경영정책으로 자본비용 조기 충족과 비용 절감 등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핀테크기업과의 협업 등을 통한 디지털 금융을 확대해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김 회장은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4본부 15부로 운영되던 JB금융을 4본부 10개부로 축소했다. 또 본점 인력 30%를 주계열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으로 발령해 조직을 슬림화했다.

소형점포를 활용한 수도권 진출도 속도를 늦췄다. JB금융의 기반인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 영업력을 다지겠다는 포석이다. JB금융은 순천, 여수, 광양 등의 지역을 기반으로 광주은행 1곳을, 전주를 기반으로 만성지구에 전북은행 1곳을 개설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다른 대형금융그룹과 달리 수도권 업력이 짧다”며 “수도권에서

성과가 난다고 연고지를 잃어버리면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 수도권 진출과 광주 전북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영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금감원 종합검사, 김회장의 리더십 능력 판단 잦아들 듯

현재 김 회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시장점유율 높이기다. 앞서 수도권 소매금융에 집중하면서 기반 지역의 점유율이 하락했기 때문. 전북은행은 여신 기준도 권역 내 시장점유율이 6개지방은행중 4위(24.8%)에 그쳤고 광주은행은 20.4%를 차지해 6위를 기록했다.

전북은행은 2017년 말 여신 기준 시장 점유율이 25.2%였지만 지난해 말엔 24.8%로 떨어졌다. 광주은행도 2017년 22.6%에서 2018년엔 20.4%로 하락했다.

JB금융 관계자는 “시장점유율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은행 영업력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지역에는 외국인 직원 배치

와 외국인 고객 특화상품 등을 개발해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임 100일만에 맞는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도 김회장의 리더십과 능력을 판단할 심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2015년 폐지 이후 4년만에 부활한 금융사종합검사 대상의 첫 타자로 JB금융을 지목했다.

현재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위해 전북에 13명을 1차적으로 보내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8일부터는 2차로 12명이 파견돼 현장 정밀검사에 도입한다.

JB금융 관계자는 “금감원 쪽에서도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 특별한 지적은 나오지 않았다”며 “김기홍 회장은 취임 초부터 지역 내 영업 활동 강화에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인슈어테크, 부작용 고려해야 해소 땀 인센티브 제공 노력”

생보協 ‘인슈어테크’ 세미나 개최  
최종구 “장기적 고민 필요한 시기”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인슈어테크:보험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보험산업의 인슈어테크 발전은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방향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생명보험협회 주재로 열린 ‘인슈어테크 : 보험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인슈어테크는 소비자 편의 증대, 새로운 시장참여자 등장, 디지털 혁신 촉진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보험설계사의 일자리 감소, 노령층의 디지털 소외 현상,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보안문제 등 부정적 측면도 상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인슈어테크에 따른)개인 정보 노출, 디지털 소외 현상, 불안전 판매, 상호부조 역할 약화 등 보험의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하고 보험의 기본원

칙을 준수하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슈어테크(Insurtech)를 통해 생명보험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발전될 미래를 그려보기 위해 마련됐다. 인슈어테크란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의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기존 보험산업을 혁신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김희주 기자 hj89@

**약기나눔엔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민들이 나누고, 학생들이 배우고, 모두모두 기쁘고

약기나눔은 학생들의 문화예술적 소양과 꿈을 키워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약기를 배우고 즐기며 자신만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 한 장의 카드에 11개 해외통화 담았다

KEB하나은행  
‘글로벌페이 스마트카드’ 출시

KEB하나은행은 한 장의 카드에 11개의 해외통화를 담은 다통화 충전식 여행자 카드인 ‘글로벌페이 스마트카드(Global Pay Smart Card)’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글로벌페이 스마트카드는 유학생, 해외여행객, 해외직구이용자들이 마스터(Master)카드를 이용하는 해외 가맹점

과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로 11개 종류의 통화로 동시 충전이 가능해 환전과 현찰 소지, 재환전의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줄였다.

특히 각 나라에 맞게 자동으로 통화가 결제되는 자동결제 시스템을 갖췄고 해외 일부 지역(영국 런던, 미국 시카고, 싱가포르, 호주 등)에서는 교통 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해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여행객들의 현찰 소지의 불편함을 없앴다. /홍민영 기자